

강소·중견 온라인¹⁾기업 채용 박람회 안내

‘강소·중견 온라인 기업 채용박람회’는 좋은 일자리를 가진 강소·중견기업 중 1회 1개의 기업(Only-One)만을 위한 채용박람회입니다.

참여기업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고 기업 설명회를 통해 구직자에게 정확한 기업정보를 제공하여 일자리 매칭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 개요

- 참여대상 : 청년구직자(만 34세 이하)
- 참여기업 : 좋은 일자리를 가진 강소·중견기업 1개(1회 1개 기업)
 - * 좋은 일자리 : 연봉·기술력·비전·복지·좋은 기업문화 등을 가진 기업
- 일 정 : 매주 상시 운영
 - * 일정은 기업 사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장 소 : 기업설명회 및 1차 면접(청년희망재단), 2차 면접(구인기업)

□ 특징

- 서류제출자 모두에게 ‘1차 면접 기회’ 제공
- 1차 면접 후 참가자 모두에게 ‘면접 피드백’ 제공
- 취업 후 직장생활 안정을 위해 ‘3개월간 직장안착 관리 서비스’ 제공

□ 참여기업의 혜택

- 기업설명회를 통해 참여기업 홍보 기회 제공(잠재적 고객 확보)
- 기존 스펙중심 채용문화에서 탈피하여 직무역량 중심의 잠재력 있는 인재 채용 가능
- 무료 채용 대행서비스로 기업 예산 및 시간 절감
- 취업자의 직장 안착을 위해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전직을 방지하고 재 채용을 위한 인적·물적 재투자 비용 절감

1) 온라인이란 강소·중견 1개 기업의 채용에 있어 온(모든) 이(청년)들에게 원하는 일자리를 매칭하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 프로그램 구성

구 분	내 용
구인기업 등록	·취업지원기관을 통해 워크넷(www.work.go.kr) 'e채용마당 일자리' 등록
구직자모집	·청년희망재단 홈페이지(http://yhf.kr) 구직청년 모집
기업설명회	·참여기업 설명회 개최(10~ 20분) ·참여기업 홍보 PT 또는 동영상 등으로 설명
면 접	·서류 지원자 모두 1차 면접(기업 채용담당자:청년희망재단 면접장) ·1차 면접 후 면접피드백 제공(면접 참가자 모두, 취업컨설턴트) ·최종면접(해당기업 면접장)
사후관리	·취업자 조직적응 및 정착 상담(담당 취업컨설턴트 지정)

□ 진행 절차

워크넷 e채용마당 채용공고 등록 ⇨ 구직자 모집 ⇨ 구인기업 설명회(채용행사 당일)
 ⇨ 1차 면접(재단 면접장) ⇨ 1차 합격자 발표(3일이내) ⇨ 2차 면접(5일이내)
 ⇨ 최종 합격자 발표(3일이내) ⇨ 사후관리(3개월)

[언론 보도]

청년희망재단, 온라인기업채용박람회 일양약품편 최초 취업자 탄생

국가기관뉴스통신사
연합뉴스

2016.01.22 (금)



[서울=연합뉴스]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 기부금으로 설립된 청년희망재단이 새해 첫 일자리 사업으로 시작한 강소·중견 온라인기업 채용박람회에서 **최초 취업자 10명**이 나왔다.

21일 재단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를 통해 **일양약품**은 서울, 강원, 대전, 대구, 부산 등 7개 지역에서 영업관리 부문에 근무할 10명을 선발했다.

입사를 희망한 지원자는 75명이었으며, 이달 15일 청년희망재단에서 1차 면접, 20일 일양약품 본사에서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이 이뤄졌다.

강소·중견 온라인 기업 채용박람회는 좋은 일자리를 가진 강소·중견기업 중 1회 1개의 기업만을 위한 **채용행사**다. 취업한 합격자들과 일양약품 최규영 상무, 청년희망재단 황철주 이사장, 청년희망재단 장의성 사무국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6.1.21 << 청년희망재단 제공 >>

헤럴드경제 뉴스

뉴스
뉴스속보

청년희망재단, 누구나 면접기회주는 채용방식 성과...첫 취업자 10명 배출

기사입력 2016-01-21 14:22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국가대표를 꿈꾸던 김경민(24)씨는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선수 생활을 하다 부상 때문에 꿈을 접고 대학에 입학했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고민하던 그는 영업관리 부문에 취업할 생각으로 취업의 문을 수없이 두드렸지만, 면접 기회는 단 두 번뿐이었다. 그러던 중 모든 지원자가 면접을 볼 수 있는 청년희망재단의 ‘강소·중견 온라인(Only-One) 기업 채용박람회’에서 면접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일양약품 영업관리 부문 취업에 성공했다.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 기부금으로 설립된 청년희망재단이 새해 첫 일자리 사업으로 시작한 강소·중견 온라인 기업 채용박람회에서 최초 취업자 10명이 나왔다

won@heraldcorp.com

청년희망재단
Youth Hope Foundation



23일 서울 종로구 청년희망재단에서 진행된 강소·중견 온라인 채용박람회에서 지원자들이 2차 실무면접을 보고 있다. 면접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동석해 면접자들의 답변과 태도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오세성 기자

면접자에 피드백 제공... 기업·지원자 모두 만족

한샘 온라인 채용박람회

청년희망재단, 7번째 행사 열어

“회사를 대표하는 영업 여왕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업을 하겠습니다!”

23일 청년희망재단에서는 청년들의 우렁찬 인사가 이어졌다.

청년희망재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재단에서 ‘강소·중견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일곱 번째로 이뤄진 청년희망재단의 채용박람회에서는 한샘 영업관리직 1·2차 면접이 진행됐다. 재단은 지원자 접수 마감 후 163명의 지원자 전원에게 전화를 해 일정을 안내하고 참가 여부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1:1 상담 지원에 대한 안내도 제공돼 희망하는 지원자는 면접 태도, 멘트 등을 전문 컨설턴트에게 사전 점검받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채용박람회는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재단은 채용박람회 지원자들에게 면접 자세와 말투, 역량 등을 다루는 면접특강을 진행했다.

강의를 맡은 윤해미 컨설턴트는 지원자들에게 적극성을 당부했다. 윤 컨설턴트는 “면접관 앞에서까지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지원자들이 있다”며 “예의바른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적극성을 어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접특강 후에는 채용박람회 참가기업

인 한샘의 기업설명회가 이어졌다. 15분에 걸쳐 기업의 사업영역과 향후 비전, 모집 직무인 영업관리직의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하며 지원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최주환(25, 남)씨는 “일반 채용박람회와 달리 사전에 전문 컨설턴트들이 면접 자세를 지적해주고 기업의 사업 설명까지 들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같은 직무라도 각 회사별로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지식이 부족했는데 기업과 모집 직무에 대한 설명을 들려주니 면접에서 나올 질문도 예측해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1·2차 면접은 재단 내 마련된 면접실에서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1차 면접은 제시된 주제에 대해 15분 준비를 거쳐 3분 동안 발표하는 프리젠테이션 면접으로 진행됐다. 이날 주제는 ‘건설시장이 한샘에게 끼치는 영향’이 제시됐고 지원자들은 각자의 답안을 찾아 발표했다. 2차 면접은 실무면접으로 구성됐다. “과정에 충실해야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광고의 여왕이자 한샘의 CF모델 전지현처럼 영업 여왕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영업을 하고 싶어 왔습니다” 등 2차 실무면접에서 지원자들은 긴장감에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어필해갔다. 실무면접에서 합격한 지원자들은 향후 한샘이 제공하는 1개월 입문교육을 수료하면 입사가 확정된다.

면접을 마친 지원자들은 재단의 채용박람회에 만족을 보였다. 정선정

(24, 여)씨는 “지방대 출신은 서류접수에서 탈락해 면접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서류탈락 없이 면접을 진행해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윤석근(29, 남)씨는 “면접을 마치고 나온 후 면접 피드백을 받았는데 양말 색까지 점검했더라”며 “면접관의 질문에 구체적인 사례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더 신경써야겠다”는 소감을 들려줬다. 재단은 면접에 면접관과 함께 컨설턴트를 동석시켜 지원자들의 면접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

참여 기업 역시 재단의 채용박람회가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한샘 김석우 ik사업부 교육팀장은 “일반 채용모집에서는 구직자들이 본인의 직무에 대해 정확한 이해 없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재단의 채용박람회는 회사와 직무에 대해 이해를 갖춘 지원자가 많았다”며 “스펙을 보지 않고 모집했는데도 경쟁한 지원자들이 모인 것도 신기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팀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면접자의 50% 가량이 2차 면접에 합격했다.

청년희망재단 장의성 사무국장은 “기업과 구직자 모두 스펙에 얽매며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안타까워 채용박람회를 기획했다”며 “출신학교, 어학점수 등 정량적인 스펙보다 지원자의 열정, 직무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회에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